

‘님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고 일주일 뒤 하늘로...

무라이 요시노리를 말한다

대담 장소를 서울 종로구 재동 '카페 코'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2011년 여름 한국을 찾은 무라이 요시노리 당시 와세다대 교수, 우쓰미 아이코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센터 소장, 이영재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서해성 작가가 바로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늦은 오후 일본에서 막 서울에 도착한 우쓰미 소장과의 영재 교수를 한홍구 교수, 서해성 작가가 반갑게 맞았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무라이 교수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네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의 네 가지 빛깔을 만날 수 있었다.

미국이 싫었던 안보투쟁·전공투 세대
이영재 무라이 선생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서해성 2년 반 전 여름에 이 방에서 무라이, 우쓰미 선생 내외분과 새우, 오징어 이야기를 나누었죠. 덕분에 그날은 복춘에 새우 때, 오징어 때가 그득했습니다.

한홍구 다음에 만날 땐 멀치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멀치 대신 무라이 선생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위중하다는 얘길 듣고 저와 서해성이 도쿄 옆 지방현에 있는 집을 찾았죠. 한국 독자들을 위해 무라이 선생이 고민했던 아시아 개념부터 풀어보죠. 선생은 일제의 대동아공영권과 달리 아래로부터 아시아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 선구적으로 고민했던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 어떻게 아시아와 다시 만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진지한 고민을 하신 분이죠. 부인인 우쓰미 아이코 선생께서 이후 연구를 더 많이 하셨지만 인도네시아 독립영웅이 된 조선인 포로감시원인 양철성같이 한국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우리 현대사의 영역을 확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무라이 선생과 우쓰미 선생은 어떻게 처음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우쓰미 아이코 무라이나 저는 미국 점령하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저희들은 미국이 싫었습니다. 무라이의 원래 전공은 막스 베버였습니다. 종교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사회와 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라이가 인도네시아의 순다에서 1975년부터 2년간 유학을 했는데 그때 동행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통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이를 다 버렸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현지를 걸어 다니면서 거기 사는 어민, 보통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연구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유학은 갖지만 대학에는 거의 가지 않았습다. 매일 걸었고, 나비 잡는 걸 좋아해서 곤충을 잡으러 다녔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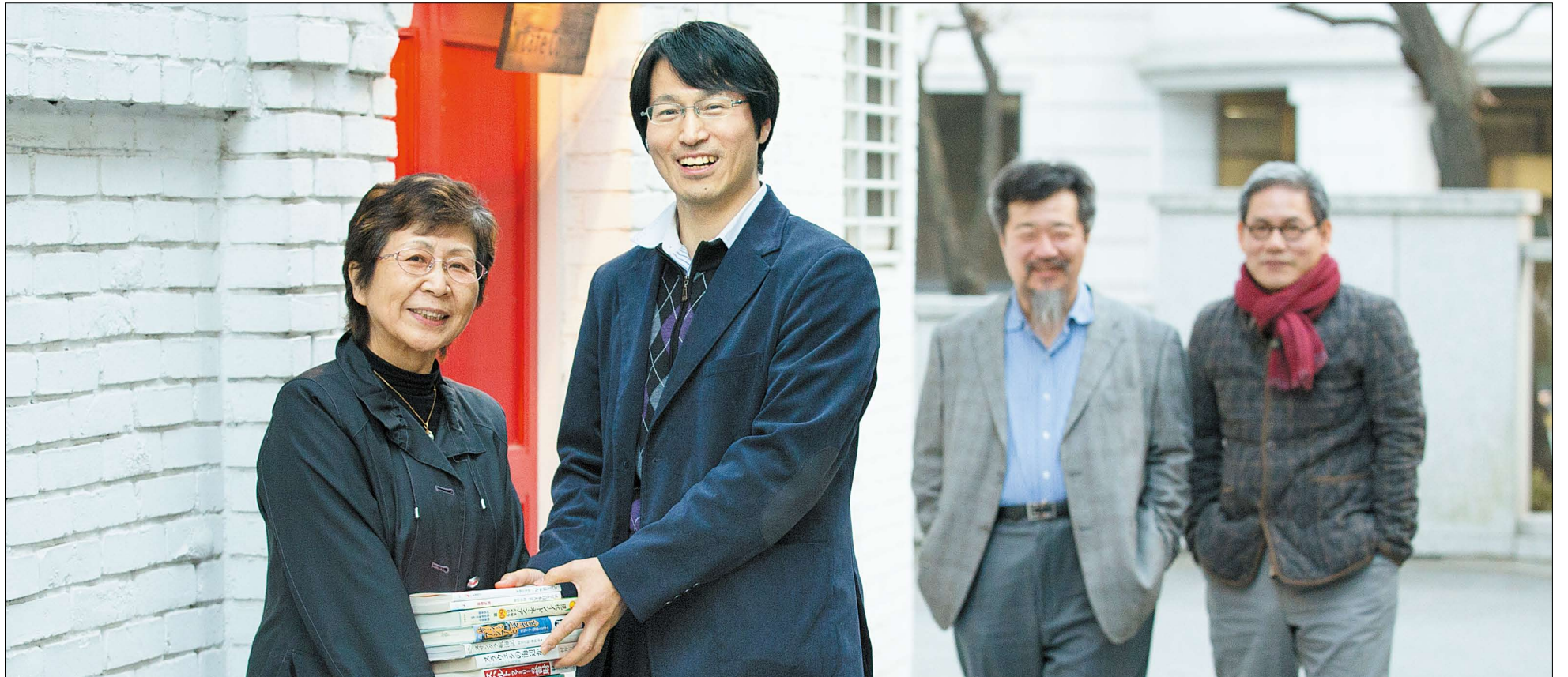
한홍구 무라이 선생님이 그런 작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그 땅을 밟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던 마오쩌둥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영재 당시 생활을 담은 <순다 생활지>(1978년)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시아는 뒤떨어진 지역이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아시아인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풍요로움이 넘치는지 보여준 것이죠. 또 미국식 연구 틀에 구애받지 않고 쓴 여행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쓰미 무라이를 통해 일본 사회는 아시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시작한 것은 1965년입니다. 유학 뒤에 공동작업을 한 것 중 하나가 일본 다국적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이었습니다. 1980년대 관광객이 증가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진출했습니다.

한홍구 한국에선 이런 작업이 1997~98년 무렵에 시작되죠. 우쓰미 선생이나 무라이 선생 세대는 미국 점령하에서 교육을 받고 안보투쟁(일-미 상호반대주의 개정 반대운동)과 전공투(전학공투회의, 60년대 일본 학생운동)를 거친 다음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럼 보통 좀 큰 것, 구조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쉬운데 어떻게 새우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우쓰미 선생도 한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특 밀어져 있는 조선인 비시(BC)급 전범 문제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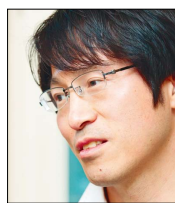
우쓰미 전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조선인>(일본독서신문출판부, 1965년)을 읽고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고 있었어요.



고 무라이 요시노리 전 와세다대 교수는 <새우와 일본인>, <순다 생활지> 등 많은 책을 남겼다. 그러나 한국어로 출판된 것은 부인 우쓰미 아이코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센터 소장과의 함께 쓴 <적도에 묻히다>뿐이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재동의 골목길에서 우쓰미 소장(앞 왼쪽)과 이영재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앞 오른쪽)가 무라이 교수의 책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함께 대담을 나눈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왼쪽), 서해성 작가가 두 사람 뒤에서 웃고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영재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서해성
작가



우쓰미 아이코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일제의 대동아공영권과 달리 아래로부터 아시아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 고민했던 아시아인”

“근대화된 일본, 아시아 깔랐지만 견고 보고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아시아인들의 풍요로움 깨달아”

“일본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선인 포로 관리인들 보면 중첩된 모순에 숨이 막혀왔다”

“피해자이자 가해자 된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국인들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일본인은 조선이 식민지라는 걸 모르는 알고 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당시 잘 몰랐습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자이니치 여성에 대한 구술조사를 하다가 일본에 조선인 전범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전범은 전쟁범죄자라고 여겨 깊게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요. 무라이는 '무라이 재벌'이라는 신종재벌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차남이라 재벌가 구조에 조금은 답답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본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
이영재 그때 인도네시아 독립영웅인 조선인 양철성을 발견하게 되죠?

우쓰미 무라이가 가끔 일본 관련 행사의 통역을 부탁받곤 했습니다. 1975년 11월 일본군인 세 명이 인도네시아 독립영웅으로 추대됩니다. 다른 두 명의 일본인은 가족들이 행사에도 참여하고 유골은 일본으로 송환되었죠. 그때 남은 한 사람 하나가 시치세이(양철성)는 조선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라이와 함께 양철성이 속해 있던 게릴라 부대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고, 포로감시원들이 있던 조선 청년들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중 148명은 전범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전후처리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해성 그 내용을 기록한 <적도에 묻히다>(원제 <적도하 조선인 반란>, 1980년)를 읽은 덕분에 향료 군도라고 부르는 말루쿠제도 암본 비행장에 내렸을 적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조선인 포로 관리인들이 연합군 포로들을 통해 건설한 비행장 말이지요. 영화 <카이강의 다리>(연합군 포로를 동원한 타이 태연철도 건설 과정을 다룸)를 볼 때 나쁜 일본 놈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조선인의 후손으로 중첩된 모순에 숨이 막혀왔어요. <순다 생활지> 등을 보면 그 지역에서

직접 살면서 획득한 기록,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대개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분명화'된 시선으로 3세계를 대상화해서 재구성하는데 말이지요. 이는 새로운 아시아학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쓰미 <작은 민초로부터의 발상>(1982년)에 <순다 생활지> 다음에 무라이가 쓴 저서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등 숫자로 표현하는 풍요가 아닌 생활 속 풍요로움을 말한 거죠. 이후 베트남 반전운동을 했던 오다 마코토, 쓰루미 요시유키 등이 좀더 아시아를 알아보고 만든 게이센여학원(파르코·PARC)입니다. 무라이와 저는 거기서 다국적기업 연구를 했지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일본 기업 연구도 파르코가 했습니다. 저와 무라이는 인도네시아 진출 일본 기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무라이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쓰루미 요시유키는 <바나나와 일본인>(1983년)을 썼습니다. 그 무렵 일본에 새우가 갑자기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우 값이 내렸어요. 그래서 새우를 조사해 <새우와 일본인>(1988년)을 발표했습니다.

서해성 무라이 선생은 정치적 배후를 가진 주제를 도리어 비정치적으로 풀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대뜸 새우와 오징어에 대해 말을 시작했습니다. 새우와 오징어로 아시아 식민지 등에 관한 문제를 대어섯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새우는 일본 아마구치현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해안선으로 진출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거의 대동아전쟁 때 일제 침략지와 흡사합니다. 과거 일본군이 진출했던 구 식민지에 지금은 새우가 주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새우들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수출됩니다. 이 동아시아 새

우 양식장은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대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즉 서식조건이 일치하는 맹그로브(열대지역 해안에서 사는 나무) 숲을 파괴하면서 긴 해안선을 바꿔버립니다. 생태요염은 물론 쓰라미가 덮쳤을 때 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지요. 이처럼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아시아의 문제, 숨겨져 있는 정치성 곧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현재 시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줄여 말해 무라이 선생은 동아시아 해안선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도, 정치적으로든.

우쓰미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건을 통해 조사를 해야 했죠. 조사방식에 서는 바나나나 새우가 같습니다. 그 속에서 식민지가 보이고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보였습니다.

한홍구 한국은 아직 그런 시민운동까지는 못 나간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제국주의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국제민주연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민주연대의 베트남 운동파트가 떨어져 나와서 평화박물관이 된 겁니다. 아직은 한국의 노동운동방식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노동자를 상대로 통제를 가해서 노동 문제가 발생할 때 조사하고 발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쓰미 언제나 진출을 당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잘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면 한국은 완전한 제국주의 국가예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5만명 정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아시아인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서해성 한마디 더 거들자면 일본의 농업·바다 양식기술은 세계적인입니다. 식민지 경영은 육종학적 발전을 동반해왔습니다. 기술지배와 함께 집약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새우 양식기술은 대만, 한국, 동아시아로 수출됩니다. 식민지배 순서와 유사한 배열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기술발전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 배후를 돌아보고 해명하는 데서 아시아학은 출발선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영재 무라이 선생은 현지 주민 생활방식이 지속되는 방안이 뭘지 고민해왔습니다. 가령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전통어업방식으로 생산한 새우(예코 슈림프·환경 새우)를 민중무역 형태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서해성 가구 하면 한국인에게 떠오르는 게 보르네오잖아요. 대동아전쟁은 이곳에서 나오는 석유를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이게 미군에게 끊기면서 전정 판도가 달라집니다. 전후에는 나무를 베어냈지요. 한국인이 뒤따라갔습니다. 근래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노천탄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았는데, 보르네오와 칼리만탄에서 원시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새는 바이오오일이 문제입니다. 팜오일 열매가 열리는 클라파 사탕을 심느라 광범한 숲에서 일삼적으로 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바이오적 사고가 야기하고 있는 사태라는 걸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재 무라이 선생을 통해서 보면 전후 일본이 아시아와 어떻게 대면했는지 알 수 있죠. 근대화한 일본은 아시아를 깔보았지만 아시아 서민들 생활 속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라이 선생은 견고, 보고, 물어보는 연구방식을 통해 새 길을 열었습니다.

우쓰미 무라이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삶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별로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과 만나면서 개방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는 기존 학문체계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같이 지속되는 연구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구조에 의문을 갖고, 이를 바꾸고 싶어했던 거죠. 한국에 와서도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길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한-일 관계만 생각하면 한국은 피해자지만 한국 기업과 군대가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국인들은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차별은 항상 중층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해자, 저 사람은 피해자라는 단순구조는 없습니다.

한홍구 짧은 대담을 통해 한국 독자들이 무라이 선생을 얼마나 이해하게 됐는지 염려되는 점도 있지만 면발치에서 뽕기해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영재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우쓰미, 무라이 선생을 만난 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무라이 선생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찾아갔을 때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더군요. 같이 불렀는데, 이때 우셨어요.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서해성 함께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건 함께 울 이유가 있는 까닭이죠. 함께 도모해야 할 미래 또한 있다는 뜻이죠. 이게 아시아인의 노래거든요. 진행·정리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2011년 여름처럼 서울 종로구 재동 '카페 코'에 서해성 작가(왼쪽부터), 한홍구 교수, 우쓰미 소장, 이영재 교수가 둘러앉았다.